

위확장을 동반한 외상성 횡격막허니아의 교정 예

김경희, 장하영, 이보라, 이준섭, 김구용, 정순옥*

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

서론: 소동물에서 횡격막허니아는 선천적인 발생보다는 후천적인 외상으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. 외부 충격으로 복압이 상승하여 장력이 가장 약한 횡격막의 근육 부위가 찢어지면서, 상승된 복압으로 인해 복강 내 장기가 흉강으로 함입된다.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 곤란과 쇼크 증상이 있을 시에는 환축의 상태가 안정화 된 후에 수술을 실시해야 하지만, 함입된 장기가 위 일 경우에는 급성 위확장으로 인한 급성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.

재료 및 방법: 2년령의 수컷 체중 3.2kg 말티즈 견이 교통 사고를 당한 후 지역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 처치와 산소 공급, 항생제 투여 후 퇴원하였다. 그러나 퇴원 당일 환축의 호흡 상태가 나빠지고 토출을 보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. CBC, 혈액 화학 검사 상에서 백혈구증가증, 질소혈증, 간 손상과 근육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일반 흉부 방사선 촬영 상에서 좌측 흉강 안으로 위가 함입되어 심장이 우측으로 변위된 것을 확인하였다. 위는 공기로 가득 차 확장되어 있었고, 좌측 폐는 위에 눌려서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. 본 환축에서는 위의 변위상이 확인되지 않아 위고정술은 실시하지 않고 감압 및 위 정복 후 허니아교정술만 실시하였다. 수술 후 하루 동안 산소 공급을 하였으며, 2주 동안 항생제와 이뇨제를 투여하였다.

결과: 수술 결과 손상된 좌측 횡격막으로 위가 함입되어 복강에서는 위저부만 확인되었고, 좌측 폐는 허탈되어 있었으며, 위 출혈은 확인되지 않았다. 수술 후 환축의 호흡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어 정상 호흡의 80% 이상으로 회복되었다. 5일 후에는 환축이 정상적인 활력을 보여 퇴원하였다.

임상적 의의: 외상성 횡격막허니아에서 함입된 장기가 위 일 경우에는 빠른 수술적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. 또한 수술 후 환기량과 저산소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, 재팽창성 폐부종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.

* corresponding author: swjeong@konkuk.ac.kr